

메인기획  
**MAIN PROPOSAL**  
국립대학법 제정  
Enactment of  
National University Law

발간등록번호

11-7000126-000051-08

『Korea NU10 Magazine』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가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발행일 2021년 8월 31일(통권 제14호)  
발행인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제 작 굿디자인연구소(T. 051-796-6600)

『Korea NU10 Magazine』 is a newsletter issued by 10 national universities representing Korea.  
Date of issue 31/08/2021 (Vol.14)  
Publisher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roduction Good Design Institute (T. 051-796-6600)



### 인사말 PRESIDENT'S REMARKS

04

고등교육 정책 포럼!  
미래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Higher Education Policy Forum:  
First Step toward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 메인기획 MAIN PROPOSAL

#### 국립대학법 제정

Enactment of National University Law

06

국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The Necessity and Expected Effect of  
National University Bill

09

국립대학법안 주요 내용  
National University Bill Highlights

12

국립대학법안,  
가을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바라며  
Hoping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Passes in the Fal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15

공유시대, 공유대학  
Sharing Generation, Sharing University

###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소식 KOREA NU10 NEWS

18

2021년 제1차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의 개최  
The First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residential Council  
Meeting of 2021

###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2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4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26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28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0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32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4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36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38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40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rea NU10 소개 INTRODUCTION TO KOREA NU10

42

Introduction to Korea NU10

# 고등교육 정책 포럼! 미래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 Higher Education Policy Forum: First Step toward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송석언**  
Seok-Eon Song Ph.D.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  
제주대학교 총장

Seok-eon Song, President of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Chairman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Council

국가거점국립대학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재정 악화 등 대학의 당면한 현안 문제 해소와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부 및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해 고등교육이 당면한 위기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학 혁신을 위한 우리와 정부 그리고 지역 사회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해 가는 자리입니다.

대학 혁신! 미래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입니다. 대학 혁신이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국가거점국립대학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면서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하고 함께 전진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키고,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시켜 가는 국가거점국립대는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국가거점국립대 가족 여러분! 파이팅!

Members of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t is my pleasure to be put in contact with all of you through this magazine.

Recently, the Council of President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as been pushing for a higher education policy forum to resolve and overcome pending problems at universities, such as the decreasing school-age population and worsening university finances.

It is a place where people from a spectrum of fields, including lawmakers, government workers, and university officials, are invited to tackle the crisis facing higher education and attach meaning to the role of us, the government and the community for university innovation.

University Innovation! is a perpetual social need for ongoing national competitiveness. We must work together on the shared issue of university innovation into the future and move forward with strong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of Korea, which we build, protect, and grow together, shine brighter when we are blessed with warm support and active participation from all of you.

Fellow Korean National University family members! Cheers to you!



# 메인기획 Main Proposal

## 국립대학법 제정 Enactment of National University Law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6월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렸다. 국립대학 설립 및 운영과 지원,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행사 서면 축사를 통해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기본 법률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법은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교육부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국립대학이 보다 기여하고 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인기획에서는 국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국립대학법(안) 주요 내용, 국립대학법 제정의 주요 과제 등을 살펴봤다.

A public hearing for the enactment of national university law was held on June 9 at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Head Office Building in Yeouido, Seoul. It is the first step in addressing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peration, support and development of national universities. Yoo Eun-hye, Deputy Prime Minister for Social Affairs and Minister of Education, wrote "National universities ar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nation, but there is no related fundamental law" in a congratulatory speech, penned for the event. Accordingly, the National University Act will serve as the foundation for ongoing development in the national university system by enhancing the autonomy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national university operations and ensuring more systematic support. Deputy Prime Minister Yoo emphasized,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also make an effort to help national universities contribute more to society, strengthen their public roles i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foster talent in the region." In this main issue, we looked at the necessity and expected outcomes of enacting the National University Act, as well as the major content and tasks of the National University Act.

# KOREA NU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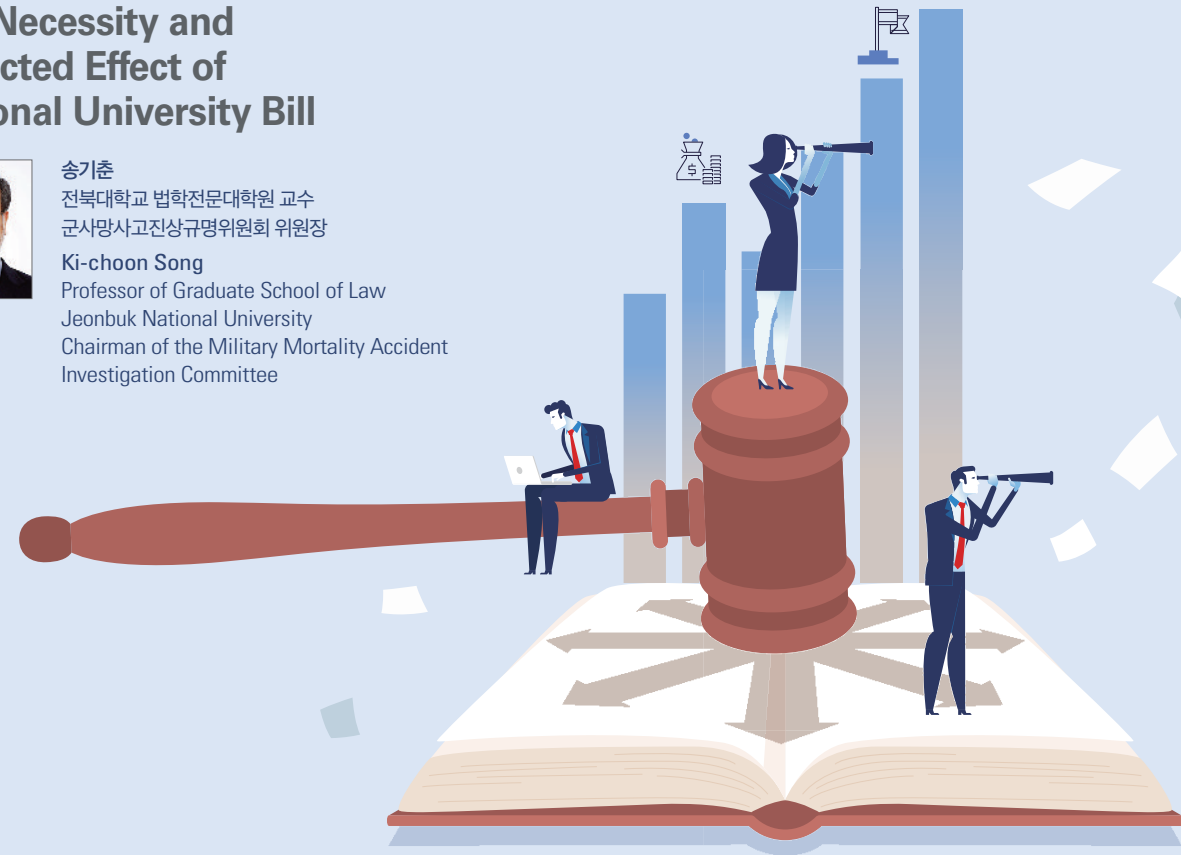
K-NU10 FOCUS 1

# 국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The Necessity and Expected Effect of National University Bill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Ki-choon Song**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Law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airman of the Military Mortality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9일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와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공동으로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국립대학법 초안은 앞의 두 단체와 교육부가 참여하여 마련되었으며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미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국립학 교설치령 등이 존재하는데 국립대학법은 왜 필요한가? 또 국립대학법을 만들면 어떤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가?

### 대학 자율성의 강화

대학은 학문의 자유의 중심에 있으며 권력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과 제22조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은 자율성을 상당한 정도로 제약받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5조는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교육부가 대학에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한다.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대학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라고 하는 판례나 이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령이나 부령 또는 교육부의 지시이다.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대학의 자율성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의회가 직접 정해야 하는 것이고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There is a growing movement to enact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On June 9, the Council of National/Public University Presidents and the Korean Fed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ion held a joint public hearing to enact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The draft National University Bill, which was announced on the same day, was prepared by the two above mentioned organization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will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oon. Why is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necessary when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Higher Education, and National School Establishment Decree already exist? Also, what positive effects are expected if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is enacted?

### Strengthening University Autonomy

Universities are at the center of academic freedom and autonomy must be guaranteed in relation to power. Article 31(4) and 22(2)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and the freedom of learning. Today, however, autonomy of universities is severely constrained. Article 5 of the Higher Education Act states, "Schools are guid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sometimes gives unreasonable instructions to universities. Failure to comply with the demands may result in financial disadvantages. Despite precedents and theories that universities are the 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the presidential decrees, subordinate decrees, or the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다른 이유는 대학 또는 학문 단위마다 국내외의 정치적·경제적 현실과 지식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모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종래 대학이 수행해 온 연구와 교육의 양과 질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대학 또는 대학입학정원의 감축이 필요해지고, 학문분야의 세분화를 지양하면서 학제적 또는 융합적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도 증대된다.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 개혁의 거센 움직임 속에서 오히려 기초학문,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과 지역의 교류 강화의 필요성도 증대된다.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립대학 지원

한국사회에서 정치·경제의 수도권 집중과 함께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대학 교육의 부실화 경향이 뚜렷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미충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몫이다. 이들 대학의 발전 지체 또는 낙후는 국가 불균형 발전의 현실을 드러내며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학(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이며, 서울대학교는 별도의 국립대학법인이다.)이 비수도권에 있다는 점에서 국립대학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비수도권의 낙후라는 현상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집중된 현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헌법 제123조 제2항)를 지향하려면 국가의 대학 관련 정책에서도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이 살아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

### 국립대학 제정의 안정적 확보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과 극심한 격차를 보인다. 2020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 4,824만 원, 연세대 3,059만 원, 고려대 2,456만 원, 성균관대 2,788만 원 등인 데 비하여 거점국립대의 경우는 부산대 1,920만 원, 전북대 1,778만 원, 전남대 1,678만 원, 충북대 1,682만 원 등으로 열악하다. 거점국립대 이외의 국립대학의 경우는 이보다 적다. 전반적으로 국립대학의 대학교육재정이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알찬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하게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와 교육 강화와 교육을 위해 교육재정 증가가 필요하다.

국립대학의 재정, 회계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국립대학회계법에 규정되고 있으나, 국립대학의 경상비 총액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육부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 편성, 정부의 예산안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경제관료의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따라 예산 항목이나 액수가 증감되게 된다. 국립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Ministry of Education that restricts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It violates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required by constitutional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The key essential point of university autonomy should be set by Congress directly, and the university's autonomy should be limited by law.

Another reason why university autonomy should be strengthened is that each university or academic unit needs to transform itself in response to changes in political and economic realities and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As the school age population decreases, changes in the amount and quality of research and education carried out by conventional universities will also be required, inevitably. As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universities or university admissions quota becomes necessary and academic areas are becoming more detailed, the need for studies on curriculum or convergent research and education also increases. Amid the strong movement of liberal-based education reform, the need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basic studies, university education, and strengthen exchanges between universities and regions is also increasing.

### National University Suppor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Korean society, there is a clear trend regarding the quality of education weakening at universities located outsid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due to concentrated support for universities inside the Seoul area with political and economic concentration in that region. The damage caused by the decrease in the school age population directly hit univers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The delay or backward development of these universities reveals the reality of the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problem of national universities cannot be addressed separately from the phenomenon that the development of non-metropolitan areas is backwards in Korean society when most national universities (there are only two national universities 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an independent national university corporate.) are located in non-Seoul area. In order to pursue the constitutional valu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rticle 123(2) of the Constitution) at a time when the population and resources are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nation's university-related policies will also have to be considered. Only when national universities revive, will it be possible for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 Securing stable national university finances

Education costs per student at national universities show a yawning gap with major universities in Seoul. As of 2020, the cost of education per student is 48.24 million w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30.59 million won at Yonsei University, 24.56 million won at Korea University, and 27.88 million won at Sungkyunkwan University, while the amount was 19.2 million won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17.78 million won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16.82 million won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or national universities that are not flagship, the amount is even less. Overall, a national university's finances can be evaluated as poor. For education to be carried out properly, sufficient funds for quality education must be secured. Given that national universities are advocating the publicity of education stronger than private universities,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increase education finance and strengthen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basic academic fields.

Finance and accounting matters for national universities are currently covered in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Act, but the total amount of expenses for national universities is not always perfectly determined.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budget items and perceived costs can be increased or decreased depending on the economic official's perception or attitude toward higher education, as it goes through the education ministry's submission of budget requests, the Strategy and Finance Minister's budget formulation, and the government's budget proposal. This makes stable funding for national universities all the more necessary.



**국립대학법(안)의 개요**

이번에 마련한 국립대학법안은 국립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자율성, 학문의 자유 증진을 통한 학문의 발전, 인재 양성을 추구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립학교설치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립대학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행정 부에서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도록 하였다. 대학의 장인 총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대학에서 문제가 되는 사무국장의 임명권은 교육부장관이 가지되 임명을 위한 추천권을 각 대학 총장이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자치조직으로서 교수회를 법률상의 기구로 하고 직원, 학생, 조교 등의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의 방법, 대학평의원회 등은 다른 법률(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단은 기존 제도의 틀을 존중하였고, 추후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확립을 위한 개정 과제로 남겨두었다. 법안에서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의무를 규정하고, 대학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을 총액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대학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국세 제외) 총액의 1만분의 218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고 매년 이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국립대학 재정지원금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육 또는 경제관료들에 의하여 교육예산이 증감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또한 대학 교원의 정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고등교육에서 핵심적 사항인 교원을 충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문 영역마다 그 교원확보기준의 최소한을 달리하였다.

**국립대학법의 기대효과**

국립대학법이 제정되면 대학의 자율성 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의 구성과 운영 등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커질 뿐 아니라 교육관료 또는 경제관료들이 대학 운용이나 재정에 관하여 좌우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교원 확보율이나 재정의 기준액을 법률에 정함으로써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대학교육의 질과 양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대학법은 국립대학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국가가 국립대학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국립대학이 선도하여 고등교육의 또 다른 담당자인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지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Overview of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which is being prepared at this time, aim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public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university education by promoting autonomy in education and research at national universities, development of academic freedom, and fostering human resources. By prescribing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currently stipulated in the National School Establishment Decree in law, the act aims to prevent arbitrary modifications by the administration and to ensure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including ensuring the basic rights of universities are only restricted by law. In relation to the election of the university's president, the university's autonomy is to be respected, and the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 which is a problem at the university is to be held by the education minister, while the university president has the right to recommend an appointment. As an autonomous organization, professors' associations are to be established as legal organizations and autonomous organizations such as employees, students, and assistants may be formed. However, the selection of candidates for the president, which is considered to hinder the autonomy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university council are to follow current laws for now as they are stipulated in the existing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nd Higher Education Act, leaving room for revisions to secure a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in the future.

The bill is seeking to increase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s budgeting and execution by stipulating the state's stable financial support obligation to national universities and providing total support for university labor, operating expenses, and facility expansion expenses. In addition, the financial support funds for national universities is set at over 218 of 10,000 of the total amount of domestic taxes (excluding some national taxes such as objective taxes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and to be expanded every year. The purpose is to prevent the increase or decrease of education budget by educational or economic officials by stipulating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id in the law. Additionally, the number of university faculty members is to be directly prescribed by the law so that the number of faculty members, which is an important matter in higher education, can be faithfully secured. The minimum number of faculty for each academic discipline is set independently.

**Expected Effects of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If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is enacted, it is expected to be very positive for promoting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Not only will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increase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universities, but there will be less room for education officials or economic officials to control the management and finances of universities. In addition, by establishing a faculty retention rate or the financial standard in law, sufficient budget for education can be secured stably, which can help secure the quality and output of university education.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aims to drastically raise the standard of national universities,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tate should support only national universities. Rather, I believe national universities can lead the way as the light of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and help secure proper national support for private universities, another entity in charge of higher education.

**K-NU10 FOCUS 2**

**국립대학법안 주요 내용**  
**National University Bill Highlights**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Jae-hong Lim**  
Professor of Law at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국립대학법안 준비를 위한 경과**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은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학령인구감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의 심화로 인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이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립대학도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국립대학은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는 한계와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공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 하에 있다. 국립대학법안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1월 20일 국립대학법 연구회(연구책임자: 차정인 부산대 총장, 전국국립대학총장협의회, 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교육부가 참여)가 구성되었다. 연구회가 준비한 국립대학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립대학의 설립·조직 및 운영, 제3장 국립대학 재정 지원, 제4장 국립대학 재정·회계 등 4개 장, 60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한 내용을 소개한다.

**국립대학법안에서 설정한 대학의 지배구조**

현재 국립대학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국립학교설치령으로 규율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율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헌법상의 학문자유 보장(제22조), 대학의 자율성(제31조 제4항) 규정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은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전에 기여한다. 이 때문에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누리고, 이 학문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에는 자치와 자율이 보장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대학의 자율을 법률이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헌법가치를 구체화하는 법률은 없었다.

**Progress in Preparation for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The environment surrounding universities is changing rapidly. In particula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universities. In addition,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 is becoming a major challenge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a decrease in school-age population, and a deepening imbalance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nd the local areas. National universities have also become responsible for contributing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 Despite these circumstances, national universities find themselves in conditions where it is difficult to perform public responsibilities due to the limitation of locations and lack of finance.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is an alternative to help alleviate this situation.

On January 20, 2021, the Association of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was formed (Research Director: Jeong-in Cha, President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and attended by Council of National/Public University Presidents, Fed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Association, and Ministry of Education).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prepared by the Research Council consists of four chapters and 60 provisions, including Chapter 1, General Rules, Chapter 2,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Chapter 3, Finance and Accounting of National Universities. Hereinafter, the main content is to be introduced.

**The Governance Structure of Universities in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Currently,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are regulat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National School Establishment Decree. However, whether such discipline is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is controversial. This is because the method stipul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does not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academic freedom (Article 22)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Article 31 (4)).

국가와 국립대학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국가와 대학의 대등성을 기초로 한 협력관계의 설정, 대학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방식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국립대학법안에는 이런 민주적 지배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 대학평의원회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권한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이나 국립대학회계법은 국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교부 총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립대학 경상비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 예산의 편성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학의 예산은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바라보는 경제관료들의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 유감스럽게도 국립대학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못하고, 국립대학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대학법안은 제31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조항을 두었다.

**국립대학법안**  
제3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의 질 향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액과 각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액(이하 '국립대학재정지원금'이라 한다.)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총액의 1만분의 218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되, 매년 확대하도록 한다.

헌법이 교육재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학문자유와 대학자율의 전제인 만큼 이번 국립대학법안의 핵심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에서 국가의 지원액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8로 한 것은 서울대 수준에 상당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을 시정하고, 지방의 국립대도 국가균형발전에 책무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Universities contribute to development in all area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rough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For this reason, universities enjoy academic freedom, and universities are guaranteed self-governance and autonomy to ensure academic freedom. The Korean Constitution requires the law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these universities, but there has been no law that embodies these constitutional values.

To create the cor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national university, the establishment of partnerships based on the equality of the state and universities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methods within the university need to be defined. However, this National University Bill did not fully reflect this democratic governance structure. This is because it has not been long since the university council was introduced, and a constitutional petition has been filed regarding the composition and authority of the university council.

**Financial Aid to National Universities**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matters concerning education finances must be set by law. However, neither the Higher Education Act nor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Act specifies the total amount of operating expenses granted to national universities. Therefore, the National University's operating budgets are finaliz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process of compiling the general budget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In this process, the national university's budget is determined not through educational consideration, but on the opinion of economic officials looking at higher education. Unfortunately, the importance of national universities has not been highlighted, and national universities do not have the budget they need.

To address this problem, the National University Act provided specific provisions in Article 31(3).

**National University Bill**  
Article 31 (Support from the State and Local Governing Organizations) ③ The state shall provide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al research and educational environment of national universities under section (1) and (2) and support expenditure sup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as internal taxes, within the range of not less than 218/10,000 (The relevant amount of the tax on purpos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45/100 of the total amount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levied on tobacco, and the amount of the tax used as financial resources for special accounts under other laws shall be excluded and shall expand every year.



**국립대학의 교원 관련**

헌법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적정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기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 그 결과 법치주의가 아닌 관료적 결정으로 국립대학의 교육여건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법안은 제26조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보다 강화된 교원확보 기준을 법정하였다.

**국립대학법안**  
제26조(국립대학 교원 확보의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대학유형별 계열별 학생정원의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인문·사회계열 20명  
2. 자연과학계열 16명  
3. 공학계열 16명  
4. 예술·체육계열 16명  
5. 의학계열 7명

**향후 과제**

국립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근거 조항이나 교원 확보기준의 강화는 예산의 확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학원인가가 감소되는 현실과 괴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과 우수한 지역의 고등교육거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국립대학의 미래상을 그려내기 위해 국립대학법안은 필수적인 전제이다. 조속한 제정을 기대한다.



The Constitution's purpose to legislate on education finances is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education. In addition, the stable securing of educational finances is a key provis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Act, as it is a premise of academic freedom and university autonomy. The 218/10,000 of the total amount of domestic taxes in the bill is equivalent to the governmental suppor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is, it can be understood that discrimination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local areas are to be corrected and that local national universities are also responsibl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sues Related to Faculty Members at National Universities**

The Constitution requires that the education system and its management be established by law in order to ensure the proper educational rights of the people. However, the standards for securing faculty of national universities are comprehensively delegated to the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niversities. As a result, a problem arose wherein the educational conditions of national universities were determined by bureaucratic decisions, not by the rule of law.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strengthened the standard for faculty securing from the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niversities in Article 26.

**National University Bill**  
Article 26 (Standard for Securing Faculty Members of National Universities)  
② When calculating the number of faculty members to be secur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section (1), the minimum standards for the number of students in each university type and academic areas are shown below. However, this standard shall not be applied to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nd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law.  
1. 20 in humanities and society  
2. 16 in natural sciences  
3. 16 in engineering  
4. 16 in the arts and sports  
5. 7 in the medical profession

**Future Tasks**

The provision of specific financial support for national universities or the strengthening of standards for securing faculty members means an expansion of the budget. Therefore, some are concerned that this is not in line with the current trend of the school age population decreasing. However,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it is a necessary provision in terms of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a higher education base in strategic local areas.

Furthermore,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is an essential premise to guide the portrayal of the future of these national universities that will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I look forward to the bill being enacted as soon as possible.





K-NU10 FOCUS 3

# 국립대학법안, 가을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바라며

## Hoping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Passes in the Fal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국립대학법연구회 위원  
**Jong-ryul Hur**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ember of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Association



전국국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는 최근 '국립대학법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가동하여 국립대학법안(이하 '법안')을 성안하였다. 법안은 금년 1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연구회 전체의 5차례 대면회의와 3차례의 원격화상회의, 4차례의 소위원회 등 모두 12차례의 협의, 총장협 소속 전체 회원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완성되었다. 총장협과 연구회는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국회교육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며, 그 개요와 한두 가지 쟁점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 등을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회가 성안한 법안은 모두 4장 60개 조문으로 체계화되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국립대학의 설립·조직 및 운영, 제3장은 국립대학의 재정 지원, 제4장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이러한 편제와 조문 배열 및 내용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조승래 두 의원의 선행 법안들,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축적된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에 힘입은 바 크다.

The National Council of Public University Presid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Council") recently enacted the National University Bil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Bill") by utilizing the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Research Association)". 4) The bill was completed after 12 consultations, including five face-to-face meetings, three remote conferences, and four subcommittee meetings, and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all members of the Council from January 20 to June 8 this year. The presidents' council and the research association are currently in talks with the National Assembly Education Committee to ensure that the bill is proposed in the form of legislation by lawmakers in regular parliament sessions. Hoping that the bill will be passed in the regular autumn sess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outline and point issues, and briefly review future tasks.

The bill proposed by the Research Association was organized into a total of four chapters and 60 provisions. Chapter 1 stipulates the general rule, Chapter 2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Chapter 3 specifies financial support for national universities, and Chapter 4 stipulates the financing and accounting of national

연구회가 법안을 작성하면서 제일 중점을 둔 것은 국립대학이 현재 법률적 근거가 아닌 '국립학교설치령'이라고 하는 불안정한 법적 규범에 근거하고 있는 열악한 법적 지위를 타개하는 것이었다. 즉, 국립대학의 근거법령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이 되도록 하는 것 그 자체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국립학교설치령의 조문들을 대부분 이 법안의 제2장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연구회는 아울러 이 법안이 법률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체계에 유의하여, 특히 제1장에 그동안 고등교육법에서 미진하였던 대학의 자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그것에 상응하는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연구회는 법안의 제3장에서 국립대학의 현안 과제인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차체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문들을 이 법안의 제4장에 통합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법안의 특징과 관련하여 특히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법안이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법안은 제4조에서 국립대학에 취약계층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 균등 부여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29조에서는 더 나아가 이들의 국립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일정비율 이상의 할당제까지 규정하였다. 둘째, 법안은 지방과 지방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정들을 법안 여러 곳에 두었다. 예컨대, 제1조에서 국립대학의 국가균형발전예의 기여 의무를 명시하였다. 제3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방 소재 국립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셋째, 법안은 평생학습사회 형성을 위한 국립대학의 기여와 역할을 규정하였다. 특히 제4조에서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되, 그 제5항에서 국립대학은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

요컨대, 이 법안은 국가와 사회가 국립대학에 대해서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담고자 노력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제로 국립대학들이 국가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의 고등 교육기회 부여 등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안의 한두 가지 조문들에 대해서는 정부 등 유관기관들이 더욱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첫째, 법안은 총장 선출 방법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24조를 따르되,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선거운동에서 교수 연구실 또는 직원의 업무용 사무공간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총장 선거에서 이것을 금지하는 경우 오히려 현실에서는 후보자들이 퇴근 후 학교 밖에서 유권자를 만나게 하는 더 심각한 부작용을 빚게 된다는 것이 대학 측의 현실적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 이것은 공직선거법이 모든 선거에서 여전히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지 않

universities. The compilation and arrangement of the content of the bill is largely based o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ct, preceding bills of Seo Dong-yong and Cho Seung-rae in the Education Committee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accumulated research reports from the Fed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Association.

The institute's primary focus in writing the bill was to break its poor legal status, which is currently based on unstable legal norms called the National School Establishment Decree, instead of official legal grounds. This is to say intensive efforts were made to make the National University's Basis Act a law rather than an enforcement ordinance. To address this issue, most of the state school ordinance provisions were transferred to Chapter 2 of the Bill. The Research Association also focused on the basic systems that the bill should contain as a law, and in particular, Chapter 1 explicitly stipulated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that had been underrepresented in the Higher Education Act, but also specifically defined the public and social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meantime, the Research Association specified the scope of funding for national universities which is the pending issue in Chapter 3 of the Bill, and prepared a proposal to incorporate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Act in Chapter 4.

What I would like to point out specifically with regar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ll is that it contains a number of regulations on the public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national universities.

First, the bill obliges national universities to establish measures to equalize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for students from vulnerable social groups in Article 4. Article 29 further provides a quota system of above a certain percentage to expand their opportunities to enter national universities. Second, in several places, the bill has provisions for overcoming crises in local universities. For example, Article 1 stipulates the obligation of a national university to contribute to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rticle 31 stipulates that local governments are obliged to support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region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Third, the bill stipulates the contribution and role of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formation of a lifelong learning society. Article 4 stipulate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national universities, but paragraph 5 stipulates that national universities are oblig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including providing lifelong education opportunities for local residents.

In short, the bill can be self-reviewed for its efforts to faithfully contain content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required by the state and society for national universities. If the bill passes at the National Assembly, national universities will be able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granting of higher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vulnerable groups. However, related agencies, including the govern-





는가 하는 지적이 있다. 둘째,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을 임용하되 종전과 달리 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국가 고등교육정책을 균등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국가차원에서 적재적소에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셋째, 법안은 국립대학의 현안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제3장 전체를 재정 지원을 위한 장으로 설정하되, 특히 제31조에서 국립대학 운영경비에 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를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8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비를 총액 형태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서 그 기준을 위의 내국세 기준 방식 외에 국가 경제규모 및 국제비교에 의한 평균 기준 방식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고등교육 전체 재원확보와도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있다.

법안의 성안 과정에서 연구회는 정부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안 중 남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막바지 조율이 필요하다. 이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이 과정을 완만하게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바라건대, 그 과정에 국회가 이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는 이 법의 1차 수범자인 국립대학 측의 형편과 사정, 의견들을 최대한 존중해주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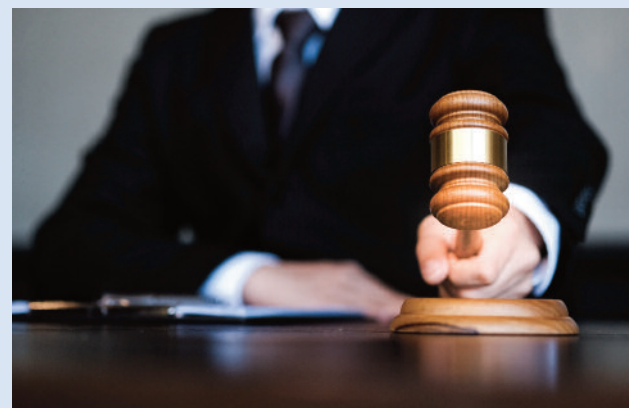
한편 이 법의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사립대학들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하다. 설립 주체는 다르지만 사립대학 역시 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이 법의 제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 고등교육법을 비롯한 고등교육법제는 고등교육을 고등교육답게 하는 데에 많이 미흡하다. 이 법안은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 보장 관점에서 고등교육이 지향해야 할 점들을 담아 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이 사립대학 관련 법제의 개선에도 확실한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ment, are asking for a closer review of one or two provisions of the bill.

First, the bill shall follow Article 24 of the Education and Public Officials Act regarding the method of electing a president, but in the case of a university that conducts a direct election system, visiting a professor's laboratory or staff's office space in an election campaign shall be allowed. In the case of a presidential election, universities believe that in reality, candidates will have more unwanted side effects of meeting voters outside of school after work.. In response, some point out that this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still prohibits door-to-door visits in all elections. Second, the bill allows the Minister of Education to appoint the secretary general of national universities, but unlike before, only with the recommendation of each university president. This is to ensure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o strengthen the president's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universities. In response, the government insists on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to promote national higher education policies equally and consistently, and to ensure that professionals can be deployed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level. Third, the bill stipulates that the entirety of Chapter 3 of the National University shall be established as a venue for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which is a pending issue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in particular, the amount of national financial support shall be at least 218 of 10,000 of the total domestic tax and provide necessary expenses in the sum total5). In addition to the above domestic tax standard method, there are opinions a review is needed on the national economic size and the average standard method by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in conjunction with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higher education.

During the course of the bill's development, the Research Association has been closely consulting with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as seen above, final coordination is needed on some of the remaining issues of the Bill. Now, if the bill i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 think the National Assembly can take center stage and complete the process smoothly. Hopefully, in the process, the National Assembly will respect the circumstances, conditions and opinions of the National University, the primary performer of the law, when considering and enacting the bill.

Meanwhile, private universities need to understand and cooperate with the legislation. Although the founding bodies are different, private universities will also be affected by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same a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current higher education legislation including the Higher Education Act, is not sufficient to make higher education more like higher education. The bill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verall higher education, including private universities, in terms of ensuring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hoped that the enactment of the law will provide a clear positive impetus to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related to private universities.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 공유 시대 공유 대학

Sharing  
Generation,  
Sharing  
University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Jin-sook Lee  
President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즘 대학 캠퍼스에서는 소위 '전동 킥보드'라 불리는 새로운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색적인 것은 어떤 학생도 이 이동수단을 소유하지 않는 '공유'의 시스템이 여기에 작동한다는 점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나의 것을 남과 공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처럼 최근 대학가에는 물질과 시스템의 공동사용 차원을 넘어 물리적 공간,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 '공유'가 주류가 되고 있다.

Nowadays, it is not uncommon to see students using a new means of transportation called 'electric kickboards' on college campuses. What's interesting is that the system of "sharing" works in this scenario, as no student owns any of them. It was not until just a few years ago that the idea of "sharing mine with others" became normal. In recent years, "sharing" has become the mainstream in universities that go beyond the boundaries of physical space and learning, beyond the shared use of materials and systems.





‘공유’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이미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시대의 거대한 조류다.

교육계에서 공유의 가장 상징적인 움직임은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Korea NU-10) 연합체다. 국가거점국립대는 1996년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한 국립대학의 체로 출발해 강원대, 경상국립대,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가 합류하며 대한민국의 10개 거점국립대가 국립대 발전과 교육의 공공성 수호, 교육개혁을 선도해오고 있다. 거점국립대학교는 최근 '거점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시스템(knu9)' 사례와 같이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지식과 인프라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일 출범한 경상국립대학교의 사례로 대표되는 거점국립대학교 주도의 대학 간 통합 역시 교육과 연구, 혁신의 역량을 한데 결집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배가시킨다는 점에서 공유의 철학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충남대와 공주대, 한밭대는 지난 5월 세종시 공동 캠퍼스 내 지역혁신캠퍼스 모델, 즉 '세종공유대학'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대전·충남지역 3개의 국

립대학이 '세종공유대학'을 설립하여 공동캠퍼스라는 물리적 공간과 AI와 ICT중심의 공동학위제 등 학사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형 지역혁신 캠퍼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그 골자다. 이 세종공유대학은 대학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캠퍼스 내에 새로운 형태의 지역혁신캠퍼스를 구축하고 공동학위제 운영은 물론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여 효율성을 꾀해 세종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그 목표다.

또한, 대전·세종·충남지역은 지난 7월 7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을 출범했다. 이 플랫폼에는 충남대를 비롯한 24개 지역 대학이 'DSC공유대학'을 통하여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대전·세종·충남(Daejeon, Sejong, Chungnam) 지자체와 지역 대학, 기업, 혁신 기관 등 17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 사업을 통해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모빌리티 ICT를 핵심 분야로 지역 인재 양성, 기술 경쟁력 제고, 산업전환 등의 기업지원,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추

진한다. 이 사업은 24개 참여 대학들이 DSC공유대학을 통해 교육·연구·개발·취업·창업 등 유·무형의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거대한 지식 플랫폼을 구축한다.

2년차를 맞은 RIS사업은 충남대 등 대전·세종·충남지역 24개 대학이 참여하는 'DSC공유대학'을 비롯해 경상국립대 등 18개 대학이 참여하는 '울산경남공유대학(USG+)', 전남대 등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광주전남혁신대학(U-GJ)', 충북대 등 13개 대학이 참여하는 '충북 지역혁신플랫폼' 등 전국 4개 거대 광역권의 70개 대학이 주도해 지자체와 기업, 혁신 기관을 연결하고 교육과 연구를 공유하며 혁신 성장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 등 정부의 방침과 이에 따른 대학들의 움직임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이 짝을 이뤄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에 전국 8개 연합체, 46개 대학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대학과 기업·민간·국책연구소 등이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모델을 통하여 인공지능·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 등 8개 신산업 영역에 적용해 인재양성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2017년부터 서울지역 17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유대학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대가 회장교인 국립대학육성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39개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수행하고 그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해 교육 혁신과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2000년 『소유의 종말(The Age of Access)』을 통해 21세기 인류의 삶은 접속과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사회의 역학 구조를 새롭게 재편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0년이 지난 현재 '공유'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이미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시대의 거대한 조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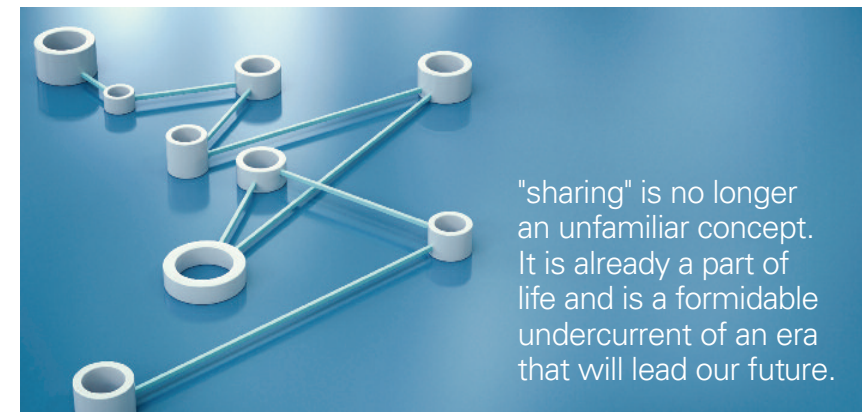
'적자생존'이라 불릴 정도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구도에 놓였던 대학들은 이제는 '공유'를 통한 '공생'에 눈을 뜨고 있다. 공유시대를 맞아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Korea NU-10)가 공유대학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The most symbolic image of sharing in the educational community is the coalition of ten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alled the Korea NU-10. Since its inception as a national university association in 1996 with five universit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Busan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association evolved with the goal of protecting publicity and developing education innovation after five more universities joined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 we can see with the recent example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remote credit exchange system (knu9)', these universities are striving to share knowledge and infrastructure beyond space and time.

Additionally, the integration between universities led b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launched on March 1, is another good example of sharing philosophy, in that it combines the capabilities of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to increas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ongju National University, and Hanbat University signed a memorandum of agreement in May to build a regional innovation campus model, known as Sejong Shared University, within the joint campus in Sejong City. The main point of this project is to establish a new type of regional innovation campus model, wherein three national universities in Daejeon and Chungnam Province form a joint campus in Sejong City, sharing physical campus space and bachelor's programs focused on AI and ICT. The goal of the Sejong Shared University is to establish a new type of regional innovation campus within a joint campus by utilizing the respective resources of the universities involved and to successfully create the Sejong Campus by sharing these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as well as running joint degree programs.

Furthermore, Daejeon, Sejong, and Chungnam Province launched the Daejeon, Sejong, and Chungnam Regional In-



"sharing" is no longer an unfamiliar concept. It is already a part of life and is a formidable undercurrent of an era that will lead our future.





# 2021년 제1차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의 개최

## The First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residential Council Meeting of 2021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송석연 제주대 총장)는 지난 6월 25일 경북대학교에서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 19' 여파로 올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대면회의이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2020년 4차 회의' 이후 대면회의를 갖지 못하고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각종 현안 등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에는 10개 회원교 총장과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 김정희 정책연구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 간 수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 회원교 간 학사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국립대학법 제정 공청회 결과보고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전략 관련 회원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기획처장협의회에서 논의된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대학원 정원의 유연한 조정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교육부에 제안서를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수업시간 조정 등 통해  
학사교류 활성화 추진  
Promotion of  
Academic Exchanges  
via Adjusting Class Hours  
and More

실험동물센터 건립  
'고등교육의 미래 세미나'  
개최 논의  
Discussion on the  
Construction of an Animal  
Experimentation Center  
and a Seminar on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실험동물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비윤리적 사육·실험 연구에 기반한 논문은 국제적인 저널에 논문을 등재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므로 실험동물센터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고등교육의 미래' 세미나 행사를 갖기로 하고 주관교로 전남대학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세미나 논의 주제 및 발제자와 장소 선정 등 행사 계획 전반을 주관한다.

The President's Council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hairman Song Seok-eon, President of Jeju National University) held the "The First Meeting 2021"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n June 25. It was the first face-to-face meeting held this year in the midst of COVID-19. The presidential council had not met face-to-face since the fourth meeting of 2020, held in Jeju last year, opting instead to discuss pending issues through remote video conferences.

The meeting was attended by 10 member-school presidents and Shin Ik-hyun, Senior Education Policy Officer at the Ministry of Education, Baek Jung-ha, Director of the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at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Council, and Kim Jung-hee, Head of the Policy Research Team.

Results of the meeting included a decision to actively promote academic exchanges between member schools by adjusting class hours between universities.

There were also reports on the results of a public hearing on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Act in Seoul in June, and the results of a meeting of the members' association of deans of planning related to "Systematic Management and Innovation Support Strategies for Universities." Participants agreed to continue expanding the autonomy of academic management and to embrace flexibility when adjusting the number of graduate students to change the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system discussed at the planning deans' association meeting and send in a proposal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the near future.

Regarding the plan to build a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Animal Experimentation Center, members put their minds together to actively raise funds, as papers based on unethical breeding, experimentation, and research are not only difficult to register in international journals, but are also a violat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The Presidential Council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decided to hold a seminar on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and selecte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o be the host. Accordingl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ill supervise the event planning, including the selection of topics, presenters and venues for discussions and seminars.





# 회원대학 주요 이슈

##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상국립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 KOREA

# NU10





공지와 희망,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디지털 도서관 '정보마루' 개관**  
CNU Opens Digital Library Named 'Information Maru'

**학술·IT 융복합 하이브리드 도서관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전남대학교가 지난 5월 11일 디지털 도서관 '정보마루'를 개관했다. 정보마루는 연면적 1만498㎡, 4층 건물로 내부에는 1,210석의 좌석이 마련돼 있으며 모든 방향에서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정보마루는 멀티미디어와 복합문화가 융합되는 공간을 지향한다. 정보와 예술, 문화와 역사, 자연과 첨단, 정보와 예술이 만나는 융복합 하이브리드 도서관으로 차별 콘셉트가 있다. 1층은 '지성의 만남, 사용자 중심의 개방된 공유 공간'으로 고급스러운 카페 분위기를 연출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2층은 다락방과 클라우드룸이 마련돼 더욱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열람공간'이며, 최신 기기가 설치된 멀티미디어존, 미디어편집실, 영상제작실도 따로 구비되어 있다.

3층은 '크리에이티브 파크'로 다양한 컬렉션과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4층은 문학자료를 위한 서가공간과 개인캐럴 등이 갖춰져 있다.

특히, 정보마루는 지역사회와 동행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정보마루가 소장하고 있는 8만 여권의 문학, 예·체능 자료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매년 개최하는 '광주·전남이 읽고 푼다' 독서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서대출 이용증을 발급해 출입 및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세미나실과 스터디룸을 예약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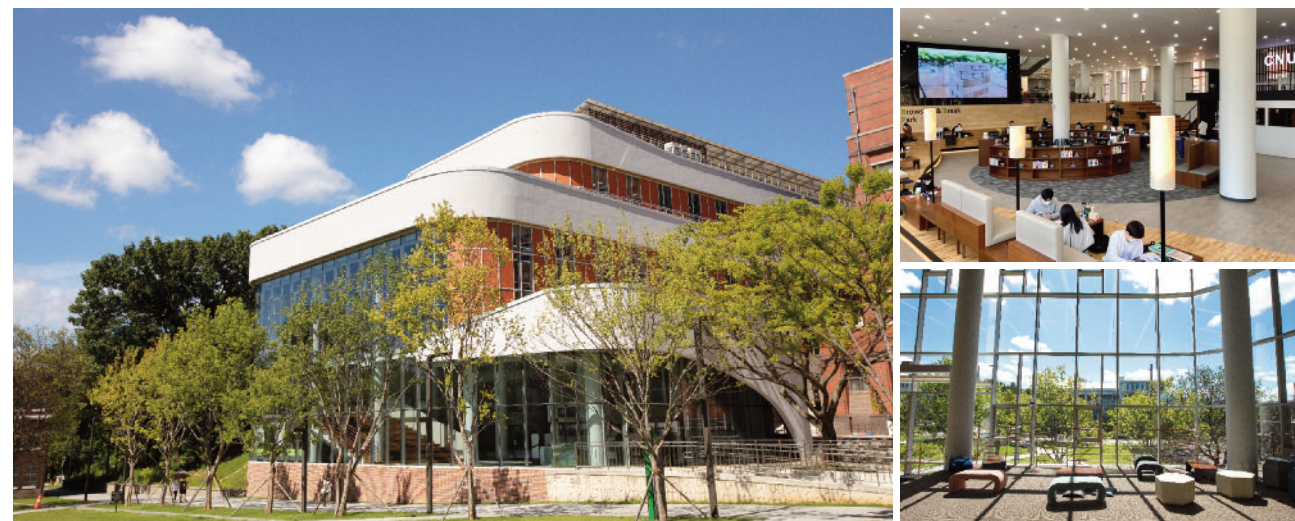
**An Academic - IT Convergence Hybrid Library  
and Cultural Space for Local Residents**

CNU opened its digital library 'Information Maru' on May 11. Information Maru is a four-story building with a total floor area of 1,498 m<sup>2</sup> and 1,210 seats inside that is designed to provide views from all directions.

Information Maru aims to be a space where multimedia and complex culture can flourish. Each floor has a concept as a convergence hybrid library where information and art, culture and history, and nature and cutting-edge technology meet. The first floor is a user-oriented space which features a unique cafe allowing various intellectual activities. The second floor is a reading space where students can study comfortably with an attic and cloud rooms, and there is a multimedia zone with the latest equipment, a media editing room, and a video production room.

The third floor features a "Creative Park" for the exhibition of various collections, and the fourth floor is full of bookshelves filled with literature and personal carols.

In particular, Information Maru aims to provide a meaningful space for local communities. Over 80,000 collections of books featuring literature, art, and sports owned by the library are available not only to enrolled students, but also to local residents. The annual Gwangju and Jeonnam Read and Talk campaign allows its members to join the library via a membership program to access and borrow the books as well as to use seminar and study rooms.



Pride & Hope Cherish the Truth, Enlighten the Worl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jnu.ac.kr](http://www.jnu.ac.kr) SNS [www.facebook.com/ChonnamUniv](https://www.facebook.com/ChonnamUniv)



**한국 최초로 남극에 중성자 관측기 설치**  
CNU Joint Research Team Installed  
Korea's First Neutron Monitor in Antarctica

**극지 우주환경 연구 중심, 국제 공동연구 기반 마련**

전남대학교 오수연 교수(지구과학교육과)를 책임자로 한 국내 우주선 중성자 관측기 연구팀이 한국 최초로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 중성자 관측기를 설치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우주선 중성자 관측은 우주로부터 오는 입자의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학제간 협동 연구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극지 우주환경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오수연 교수는 "우주선 입자는 위성 및 우주선체의 장기적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인데 미래 우주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연구가 꼭 필요한 분야다"며 "이 관측기는 우주선 입자 연구의 토대가 되는 장비로 우주선 관측 자료 분석 연구를 통한 우주환경 감시, 인공위성 탑재 우주선 검출기의 관측 자료 활용 등에도 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Focusing on Space Environment Research,  
Laying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he Domestic Spacecraft Neutron Monitor Research Group, headed by Professor Oh Soo-yeon of the CNU 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installed Korea's first neutron monitor at the Antarctic Jang Bogo Science Base in January of last year. According to the research team, the observation of spacecraft neutrons not only enables cooperative interdisciplinary research from understand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particles coming from space, but can also lead to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entering on polar space environment research. Professor Oh said, "In the space environment, spacecraft particles are detrimental factors that hinder the long-term operation of satellites and spacecraft. However,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space environment for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future space industry. The neutron monitor is a device essential to spacecraft particle analysis, and it can be applied to space environment monitoring through data analysis and research as well as to observation data of satellite-mounted spacecraft detectors."



오수연 교수  
Professor  
Oh Soo-yeon

**AI 기반의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I-Based Fishery  
Management System

**해양수산부로부터 106억 원 예산 지원 받아 수행**

전남대학교 이경훈 교수(해양생산관리학과) 연구팀이 'AI 기반 스마트어업관리시스템 기술 개발' 실증화 사업에 선정됐다. 이경훈 교수는 "이번 연구사업으로 우리나라 어획량 통계의 질적 제고 및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어획과 업종별 어획노력량 등 어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어업자원관리방안을 최첨단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TAC 대상종 조업선박의 (준)실시간 어획 및 조업활동 정보를 확보, 분석하고 국내 120여 개 주요 위판장의 수산자원조사원 수행업무를 스마트화하여 조업정보통합연계 및 서비스 제공 어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Implemented with a Budget of 10.6 Billion KRW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 research team led by CNU Professor Lee Kyung-hoon (Department of Marine Production Management) was selected for the AI-Based Smart Fishery Management System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Professor Lee said, "With this research project, we are planning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statistics on catches in Korea, systematically manage fishery information such as bycatch that occurs during the fishing process and the amount of fishing effort by industry, and support the state-of-the-art national fishery resource management plan." Accordingly, the research team will secure and analyze the (quasi-) real-time fishing and fishing activity information of fishing vessels of TAC (Total Allowable Catches) target species. It also will establish an integrated fishery information service and fishery management system through support for the "smartization" of fisheries resource surveyors at over 120 domestic markets.



이경훈 교수  
Professor  
Lee Kyung-hoon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전북대학교**

**대학위기 극복 위해 전북지역 17개 대학 뭉쳤다**

17 Universities in Jeonbuk Region Unite to Overcome Crisis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입학정원 미달,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의 가속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 등이 불러온 지역대학의 위기에 전북지역 대학들이 하나로 뭉쳤다.

전북대학교 등 전북지역 17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북지역대학발전협의회(발기인 정용채 전북대 기획처장)가 6월 24일 오후 2시 전북대 진수당 2층 회의실에서 창립회의를 갖고 긴밀한 협력에 나선 것

참여대학은 전북대와 군산대, 농수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교육대, 전주대, 호원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백제예술대, 예수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한일장신대 등이다.

이날 창립회의에는 전북대 김동원 총장과 발기인인 정용채 전북대 기획처장을 비롯한 17개 대학 기획처장단이 참석, 회칙을 심의하고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초대 회장은 이 협의회를 주도한 전북대 정용채 기획처장이 맡게 됐다.

특히 지역 대학의 이러한 공유와 연대의 바람에 전라북도도 적극 힘을 보태기로 해 더 큰 성과가 기대된다. 이날 전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이 직접 행사에 함께해 이 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전북지역의 모든 대학이 마주한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역대학이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안들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우선 대학들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전북지역 대학 간 학사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간 학술교류 협정을 통해 상호 학점을 인정해주거나, 대학별 교육과정과 교류방법, 시기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학사교류 모델을 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뉴 노멀로 자리잡은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활성화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전북대가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전북대와 전주비전대가 주관대학으로,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호원대, 군장대, 예수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한일장신대 등이 협력대학으로 참여한다.

올해 권역 내 대학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스튜디오 등을 구축하고, 대학 간 학점교류가 가능한 교과목 콘텐츠도 개발 지원한다.

김동원 총장은 축사를 통해 "대학이 처한 현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17개 대학 기획처장님들 주도로 추진되는 전북지역대학발전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며 "협의회를 통해 대학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초대 회장을 맡은 전북대 정용채 기획처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본 협의회가 대학의 위기 극복과 미래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niversities in Jeollabuk-do (North Jeolla Province) have united in response to compounding problems regional institutions face. 17 universities in the region have come together in a joint effort to overcome the lack of student enrollment caused by the sharp decline in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loss of talented students to universities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not to mention the consequences of the continued COVID-19 pandemic which has exacerbated existing problems.

The Jeonbuk Regional University Development Council was established to lead these efforts. Headed by Dr. Jeong Yong Chae, Vice President of Planning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inaugural meeting was held on June 24th at 2:00pm in the second-floor conference room of Jinsudang Hall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17 universities attended the meeting to discuss ways to collaborate and find solutions to these chronic problems.

Participating universities includ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un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Woosuk University, Wonkwang University,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eonju University, Howon University, Kunsan College of Nursing, Kunjang University College, Paekche Arts University, Jesus Universit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Jeonbuk Science College, Jeonju Kijeon College, Vision College of Jeonju, and Hanil Jangshin University.

In addition to Dr. Jeong Yong Chae, President Kim Dong-Won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the directors of each university's department of planning attended the meeting. The meeting agenda included establishing the rules of deliberation and electing the council president. Dr. Jeong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as elected 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council.

All participants hope that collective support and solidarity within the council will help universities overcome obstacles and they expect great results. Yoo Hee-sook, the General Manager of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Bureau of the province, also personally attended the meeting to not only express the provincial government's commitment to local institutions, but also commit to regularly participating in the meetings.

The Best Gloc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jbnu.ac.kr](http://www.jbnu.ac.kr) SNS [www.facebook.com/jbnu1947](https://www.facebook.com/jbnu1947)



The first meeting of all participating universities in Jeonbuk Province had in-depth discussions and set the detailed measures for the joint response to overcome the crisis faced by local universities.

One of the first measures proposed is strengthening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in the province. Specifically, the council expressed the need to create an academic exchange agreement for mutual course credit recognition among universities and creating an academic exchange system that can accommodate each university's curriculum and preferred exchange method. The council plans to implement this in the near future.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revitalize the Graduate Education Support Center in the province to adapt to the pandemic and accommodate for the "new normal" by expanding access to virtual programming.

The Graduate School Education Support Center opened late last year whe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for a project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s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Vision College of Jeonju are the supervising universities of the center and Kunsan National University, Woosuk University, Wonkwang University, Jeonju University, Howon University, Kunjang Univer-

sity College, Jesus Universit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Jeonbuk Science College, Jeonju Kijeon College, and Hanil Jangsin University are collaborating universities.

This year, the center will establish a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and a studio that can be jointly used by the universities in the region to develop courses all universities can give credit for.

In his congratulatory speech, President Kim Dong-Won said, "creation of The Jeonbuk Regional University Development Council, led by the heads of planning departments of 17 universities, is very timely and meaningful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e is confident the council is "capable in responding to the current crisis facing universities and promoting healthy development. I hope that through the council there will be clos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through these, a positive energy to overcome difficulties."

Newly elected council president Dr. Jeong also issued a statement the same day stating, "I feel a heavy responsibility to take on this work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Still, I will do my best to make this council a foundation for universities to overcome this crisis and lead future endeavors."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제주대학교**

**입학성적 우수 학생 대상 등록금·해외연수비 등 지원 - '기숙형대학' 프로그램 운영**

JNU Supports Tuition, Overseas Training Expenses and More for Students with Outstanding Admission Scores. Also Starts an Honors Residential College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입학성적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생 기숙형 대학(JNU-HRC)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2일 1기 선발자 17명을 대상으로 교양강의동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JNU-HRC 프로그램은 우수 신입생 유치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 맞춤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JNU-HRC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등록금, 생활관비(기숙사) 지원 및 학습활동 지원비를 보조받게 된다. 또 외국어, 예·체능 및 창의적 사고능력을 키우기 위한 JNU-HRC만의 특화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다문화적 사고 능력 함양을 위해 일정기간 해외 연수과정을 이수한다. 오리엔테이션 행사는 JNU-HRC 프로그램 소개, 향후 JNU-HRC 운영 과정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송석연 총장은 "대학 4년의 공부가 인생 80~90년을 좌우한다"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JNU-HRC에 참여해 창의 융·복합적 사고를 가진 학생으로 성장, 제주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Jeju National University's Education Innovation Division starts an Honors Residential College (JNU-HRC) for students with excellent entrance grades beginning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1. An orientation for this program was held on June 22 at the lecture hall for 17 students selected in the first round. The JNU-HRC program aims to foster creative and enterprising, future-customized talent with a strong international competency by attracting top freshmen. Students who participate in the JNU-HRC program are to have their tuition and dormitory fees subsidized, as well as additional learning activities supported. Additionally, JNU-HRC participants are to take part in a special comparative program designed to develop foreign language skills, arts, physical education and creative thinking skills. To enhance multicultural thinking skills, an overseas training course will also be provided. At the orientation, students were introduced to the JNU-HRC program and guided through the upcoming JNU-HRC operational process. President Song Seok-eon said, "Four-years of studying at college determines the 80 to 90 years of one's life," and asked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JNU-HRC programs actively and grow into students with creative convergence and complex thinking and become talents who can enhance the status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o the Basic, For the Fu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HOMEPAGE [www.jejunu.ac.kr](http://www.jejunu.ac.kr) SNS [www.facebook.com/제주대학교-1536145756655629](https://www.facebook.com/제주대학교-1536145756655629)



**연안 어족자원 보호 위해 고급어종 치어 무상방류**

JNU Releases High-End Fish Species Free of Charge To Protect Coastal Fish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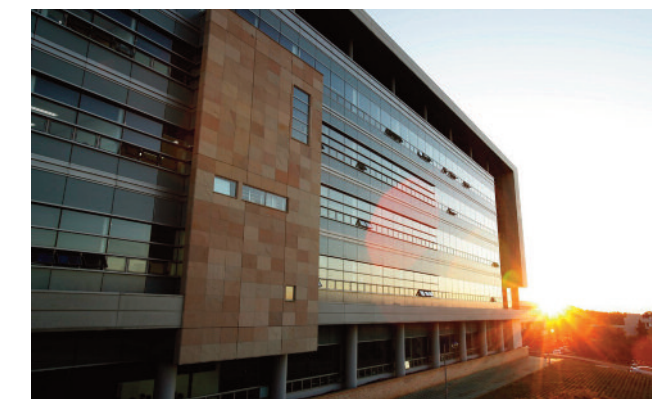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제주양식어류번식육종평가센터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 해역에 '붉바리' 치어 및 치어 100여만 마리를 방류했다. 붉바리는 바리과 어류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귀한 어종이지만 최근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멸종위험 적색리스트로 분류될 정도로 급격하게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제주대는 "이번 방류로 지역 근해 어족자원 보호 및 자원 생물 복원으로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 Jeju Fish Breeding and Breeding Evaluation Center at Jeju National University's Marine Science Institute has released more than 1 million larva and developing red grouper fish in the waters off Jocheon-eup, Jeju-si, over three events designed to protect fish stocks. The red grouper is a valuable fish species, the most expensive of the Serranidae family, but its resources have been rapidly decreasing to the point that it has recently been classified as an endangered red list species by the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said, "We are looking forward to increasing the income of local fishermen by protecting fish stocks near the region and restoring resources. We plan to continue these discharge events in the future."

**재난형 교통사고 피해학생 33명에 특별장학금 지원**

Special Scholarships Given to the 33 Victims of Disaster-type Traffic Accidents



제주대학교는 지난 4월 대학 진입로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학생 33명에게 총 1,40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번 특별장학금 지원은 이번 사고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이며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례로 대학 소속 학생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했다고 제주대는 설명했다. 특히 사고 피해 학생들이 빠른 회복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제주대는 이 사고 이후 교통사고 발생 요인 문제점 개선을 경찰 등 관련 당국에 건의해 대학 진입 대도로 변에서의 화물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Jeju National University provided a total of 14 million won in special scholarships to the 33 students affected by a traffic accident at the intersection of the entrance to the university in April. JNU explained that the special scholarship support was due to the accident being considered a social disaster under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hat the damage to university students was severe. In particular, the aim is to allow students affected by the accident to concentrate on their studies through a quick recovery. After the incident, in a proposal to police and other related authorities, JNU offered to improve the problem of traffic accidents by preventing cargo vehicles from operating on the side of the university entrance road.





CNU 100년, 위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충남대학교

The 100th Anniversary of CNU, a New Start for a Great Fu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cnu.ac.kr](http://www.cnu.ac.kr) SNS [www.facebook.com/CNUNOW](https://www.facebook.com/CNUNOW)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RIS)플랫폼’ 출범

Launching the Daejeon-Sejong-Chungnam Regional Innovative Platform

대전·세종·충남 광역자치단체와 충남대학교 등 대학, 기업, 지역혁신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을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로 견인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사업’이 닦을 올렸다.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은 7월 7일, 충남대 백마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대전·세종·충남 광역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24개 참여대학, 지역 협업 위원, 참여기업 및 기관 등이 참여했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은 지난 5월 6일,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에 선정됐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충남대 등 24개 대학, 현대자동차 등 81개 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63개 기관 등 총 170여개 기관은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대세충 혁신플랫폼)’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이 ‘대세충 혁신플랫폼’에는 올해부터 5년 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3,430억원이 투입돼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모빌리티 ICT를 핵심 분야로 지역 인재 양성, 기술 경쟁력 제고, 산업전환 등의 기업지원,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위해 총괄대학인 충남대를 비롯한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24개 대학은 ‘DSC(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을 통해 연간 7,000명의 핵심분야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이 중 3,000명의 인재가 취업 및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 환경 구축, 모빌리티 신산업 기술 고도화, 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 중인 ‘세종 공동캠퍼스(충남대·공주대·한밭대 등 입주) 및 ‘인공지능(AI) 공유대학’과 연계해 향후 교육·연구·창업 등을 위한 시설·공간을 제공해 공유대학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공유대학의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 내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등 앵커기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핵심연구소가 공유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사업화 등 협업과제 수행을 통해 학생과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해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과 나아가 한국형 뉴딜의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has been launched that is based on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It will lead to a future mobility innovation ecosystem for Daejeon, Sejong, and the Chungnam region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ies, companies, and regional innovation institutions, including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of Daejeon, Sejong, and Chungnam province, as well a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 launching ceremony was held for the Daejeon-Sejong-Chungnam Regional Innovative Platform at Baekma Hall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n July 7. Yoo Eun-hae, the Deputy Prime Minister for Social Affairs,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heads of Daejeon, Sejong, and Chungnam regional governments, national assembly members, 24 participating universities, regional council members, companies, and institutions attended to celebrate this ceremony. The Daejeon, Sejong, and Chungnam regions were selected for the 2021 Local Government-University Cooperation-Based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project on May 6. A total of 170 institutions, including Daejeon Metropolitan City;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Chungcheongnam-do; 24 universities, includ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81 companies, in-

cluding Hyundai Motor Company; and 63 institutions, including the Korea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are striving to establish a thriving ‘Future Mobility Innovation Ecosystem’ through the Daejeon-Sejong-Chungnam Regional Innovative Platform.

A total of 343 billion won, including national and local expenses, will be invested for the next five years on the Daejeon-Sejong-Chungnam Regional Innovative Platform for the development of mobility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nurturing local human resources with a focus on mobility ICT; enhancing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dustrial transformation of business support; and the creation of a start-up ecosystem.

A consortium of 24 universities in Daejeon, Sejong, and the Chungnam area, led b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will establish a system to nurture 7,000 core human resources annually through the DSC (Daejeon, Sejong, Chungnam) Shared University. This will create a sustainable regional innovation ecosystem by building up a youth-friendly settlement environment, upgrading new mobility industry technology, supporting businesses, and revitalizing start-ups so that the young can get employed and settle in the region.

In particular, in connection with the Sejong Joint Campu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ongju University, and Hanbat University)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Sharing University promoted by the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nd the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the group plans to provide facilities and space for education, research, and start-up activities beyond the geographical limitations of the shared university and secure the sustainable continuity of the shared university even after the project is completed.

In addition, anchor companies, such as Hyundai Motor Company and Samsung Display, and core research institutes, such as th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and the Korea Automotive Technology Institute,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shared university curriculum, as well as the evaluation of the competence of students and the implementation of collaborative tasks, such as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The group is expected to establish a mega-city foundation in the Chungcheong region and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Korean New Deal.







###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

## 충북대,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원격교육의 허브역할 수행 CBNU serves as a Distance Education Hub in the era of Metaverse

### 충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및 사범대학 미래교육센터 개소

충북대학교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원격교육의 질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충북대는 지난 6월 3일 충북대학교 내 형설관에 '충북권역 대학원격교육 지원센터'를 개관하고 대학원격교육지원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7일에는 사범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개소해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 미래교육의 장을 열었다.

먼저, 충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1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하는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충북권 전역의 대학 원격교육의 질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그간 축적한 실무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북도립대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권역 내 대학과 전문대학을 연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형설관 3층 강의실을 리모델링해 권역 내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을 위해 비디오펠, 호리존, 크로마키, 전자칠판 등 다양한 형태의 강의 제작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스튜디오와 행정지원을 위한 행정실 등을 구축했으며, 원활한 원격교육 진행 및 실시간 송출이 가능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앞으로 5년 간 ▲충북권역 공동 활용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충북권역 공동 활용 원격강의 제작 인프라 구축·운영 ▲충북권역 공동 활용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대학 원격수업 혁신 지원 및 협력 등 4개의 부문으로 나눠 충북권역 내 20개 대학의 고등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공동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시작되면서 원격교육 역량과 비대면 소통 능력이 중요해진 현대에 발맞춰 미래 교육을 책임질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교육센터도 마련됐다.

미래교육센터는 지난 2020년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원격교육 역량 강화사업의 하나인 미래교육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설치된 기관으로 소형 원격 강의 및 상담실 3개소, 상호작용형 비대면 스튜디오 1개소, 영상 편집실 2개소, 가상현실 및 증강 현실 체험실 1개소 등이 마련됐다.

미래교육센터에서는 ▲원격수업,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각종 원격교육 방법실습 ▲협력학교와 상시 원격연결 체계로 초·중등학교의 원격교육 체험 ▲예비교원, 현직교원, 교수가 협력한 원격수업 공동연구 참여 ▲학습자 맞춤형 방과후 학습 지원을 위한 원격 멘토링 봉사 등을 진행하며, 현재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와 고교선택과목제에 대한 능동적인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수갑 충북대 총장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격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역량을 키우고, 빠른 변화에 적응하길 바라며, 충북대학교가 대학원격교육지원 거점대학으로서 공유 및 협력 활성화를 통해 원격교육 내실화 기반을 정착시키고, 무엇보다 물리적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메타버스의 시대를 맞아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Opening of Chungbuk Regional Support Center for University Distance Education and The Future Education Center at Education Colleg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Kim Sukab) is taking the lea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distance education in the Post-Covid era. CBNU opened its "Chungbuk Regional Support Center for University Distance Education" at Hyeongseolgwan on June 3 and serves as a hub for supporting university distance education. On June 7, it opened The Future Education Center at Education College to lead the Metaverse era.

Chungbuk Regional Support Center for University Distance Education was established after CBNU won "the project for selecting and operating the regional support center for university distance educa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in last November. To improve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university distance education in Chungbuk area, CBNU has established a consortium with Chungbuk Provincial College to serve as a hub which links and supports

## A Dynamic Future that We Will Open Togeth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MEPAGE [www.chungbuk.ac.kr](http://www.chungbuk.ac.kr) SNS [www.facebook.com/cbnu1](https://www.facebook.com/cbnu1)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the region, based on its hands-on experiences and technical skills accumulated so far.

To this end, a lecture room on the third floor of Hyeongsulgwan was remodeled into a hybrid studio with video walls, Horizon, Chroma key, electronic blackboard, etc., which can produce various types of lectures. And an administrative office was also prepared to help. It has become so popular because smooth distance education and real-time transmission could be possible.

Besides, for five years ahead,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CBNU will promote four advanced joint programs with other 20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Chungbuk area such a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learning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oduction infrastructure of distance education, development and use of distance education contents, and support and cooperation for innovation in university distance education.

In addition, The Future Education Center was established to support teacher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future education to keep up with the times when distance education capabilities and non-face-to-face communication skills have become important as the spread of covid-19.

The Future Education Center was established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s future education center project in 2020, which was one of the ministry's projects to strengthen distance educa-

tion capabilities of teachers' training institutions. The center has three small-sized distance class and counseling rooms, one interactive non-face-to-face studio, two video editing rooms, and one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VR/AR) laboratory, etc.

The Center started to conduct many programs: training distance education methods such as distance classes, online contents production, etc., monitoring distance education a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rough a regular remote connection system with cooperative schools, participating in joint research by pre-service teachers, in-service teachers, and professors, remote mentoring service for individualized after-school classes, etc. In the future, it will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and active support for a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a high school elective subject system that the government is currently working on as a focal project.

Kim Sukab, president of CBNU, said, "We hope that students will be able to develop their capabilities and adapt to rapid changes in the turbulent education environment in the Post-Corona era. We also hope th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 a hub for university distance education, will establish the foundation of substantial distance education through sharing and cooperation and take the lead in improving the new educational environment using virtual convergence technology in the era of Metaverse, which has overcome physical and spatial limitations."







##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강원대학교

### 「미래형 교수학습모델 개발 지원사업」 전국 사범대학 유일 선정

The only College of Education to be selected for the 「Future-Oriented Teaching and Learning Model Development Project」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이 「2021년 미래형 교수학습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전국 사범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

「미래형 교수학습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며,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 변화와 초개인화 학습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학교 현장에 적합한 수업과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강원대 사범대학과 진주교육대학교 2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앞으로 최장 3년간(2+1) 매년 1억원씩 총 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강원대는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KNU 미래교육센터'의 에듀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난 2017년 개발한 'BBC 모형' 교수 학습법과 '초개인화(Hyper-individualized) 학생 맞춤형 수업'을 접목한 'Hi-BBC+e 모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강원대는 지난 2017~2018년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2020년 '원격교육 역량 강화 사업'과 올해 '미래형 교수학습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연이어 선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사범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총괄하는 박주병 강원대 교육혁신원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강원대학교가 미래 교육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중등 교육현장의 변화와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Hi-BBC+e 모형'의 순차적 적용을 통해 미래사회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표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The College of Education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as the only College of Education within the nation to be selected for the 「2021 Future-Oriented Teaching and Learning Model Development Project」.

'Future-Oriented Teaching and Learning Model Development Project' is a project ho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in order to develop a classroom model suitable for the future. The project aims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caused by social changes such as COVID-19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le catering to the demand for hyper-personalized learn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Education and J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ere selected for this project in which they will receive a budget of 100 million won each year totaling up to 300 million won for up to three years (2+1).

By utilizing the edutech infrastructure of the 'KNU Future Education Center', which is operating in earnest from this yea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will develop a 'Hi-BBC+e model' by combining the 'BBC Model'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developed in 2017 and 'Hyper-individualized student-customized classroom model'.

Previousl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for the 'Creative Education Competency Reinforcement Project' from 2017 to 2018 and the 'Distance Education Competency Reinforcement Project' in 2020. This year the school proved its competency as a leading education university by being selected for the 'Future-Oriented Teaching and Learning Model Development Project'.

Park Joo Byung, the head of the Institute for Teaching and Learning, quoted "Through this project, we expect th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successfully nurture prospective teachers with capabilities suitable for future classroom environment whil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making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secondary education field. We aim to contribute in preparing a new curriculum standard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future society through sequential application of the 'Hi-BBC+e model'."

## The Hub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kangwon.ac.kr](http://www.kangwon.ac.kr) SNS [www.facebook.com/knu.abs](https://www.facebook.com/knu.abs)



### 접경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강원 네트워크 캠퍼스(KNC)」 구축

Establishment of the 「Kangwon Network Campus (KNC)」 to nurture regional talents in the border area

강원대학교는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과 5월 18일 인제군청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현영 총장과 최상기 인제군수, 조인목 양구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등 대학·지자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사업 수행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사업 추진에 따른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지역주민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자체별 캠퍼스 구축에 필요한 전문적인 분야 지원·운영 등이다.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사업'은 인제군·양구군·화천군이 지원하고 강원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6억 1,000만원(도비 18억원, 시군비 8억 1,000만원)을 투입해 지역대학 온·오프라인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대학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역량 강화 사업이다.

강원대와 각 지자체는 주민복지회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 온·오프라인(양방향) 교육시설을 확충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캠퍼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지역인재 발굴·양성·채용·정주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Inje-gun, Yanggu-gun, and Hwacheon-gun on May 18th in the Inje-gun City Hall for the 「Network Campus Construction Project to Nurture Local Talents」.

The signing ceremony was attended by 10 university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 Heon young Kim, Inje County Governor Sang-ki Choi, Yanggu County Governor In-mook Jo, and Hwacheon County Governor Moon-soon Choi. The attendees all agreed upon establishing a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to train local talents and realize educational welfare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agreement.

The agreement includes ▲cooperation within the affiliated par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twork campus construction project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 dedicated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ject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 curriculum tailored to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support of specialized skills necessary for constructing the campus by local governments etc.

The 'Network Campus Construction Project' is a project supported by Inje-gun, Yanggu-gun, and Hwacheon-gun and supervised b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roject is expected to cost 2.61 billion won (1.8 billion won provided by the provincial government, 810 million won from the city and county) for three years until 2023. The project aims to strengthen regional capacity by establishing an online/offline base to provide high-quality university education services to local resident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each local government established a 'local campus' to nurture local talents by expanding online and offline (two-way) educational facilities at the Resident Welfare Center and Youth Culture House. Additionally, the project will also create customized training courses in connection with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businesses in order to discover, nurture, and hire local talents while reviving the local community.







### 다시 뜨겁게! 다시 자랑스럽게! 경북대학교

#### 경북대, 대규모 연구사업 연이어 선정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nsecutively Selected for Large-Scale Research Projects

경북대학교가 올해 상반기에 1,700건에 육박하는 과제를 수주, 총 2,145억 원의 연구비를 유치하며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주액인 2,357억 원의 90%가 넘는 금액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책사업은 상반기에만 807억 원을 유치, 지난해 768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최근 대규모 정부사업인 집단연구 과제에 다수 선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북대는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에 선정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3개 과제에 연이어 선정됐다. 향후 7~9년 동안 지원받는 연구비만 총 400억 원에 이른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는 우수한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우수한 연구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학술지원사업이다. 경북대 ICT·자동차융합연구센터(센터장 한동석)가 올해 사업에 선정돼 최대 9년간 77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로써 경북대는 기존에 선정된 울릉도·독도연구소, 자율군집소프트웨어연구센터, 환경과학기술연구소, 고에너지물리연구소 등을 포함해 총 5개 중점연구소를 보유하게 됐다. 경북대 ICT·자동차융합연구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중지능기반 휴먼-센트릭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을 연구주제로, 인간의 의도를 포함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주된 연구 분야는 ▲자율이동체에서 인간의 돌발 행동 반영 ▲비정형도로 환경 ▲대용량 센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 및 정밀 측위 ▲인간의 의도 포함 주행 제어 ▲실용화 가능한 인공지능 아키텍처와 임베디드화 등이다. 우수 연구집단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연구센터' 사업에도 경

북대는 공학 분야(ERC)에 '소프트웨어 재난 연구센터(센터장 최윤자)', 기초의 과학 분야(MRC)에 '중앙 가소성 연구센터(센터장 이병현)', 지역혁신 분야(RLRC)에 '탄소중립 지능형 에너지시스템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센터장 노종욱)'가 각각 선정됐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우수 연구집단을 발굴하고 차세대 창의 융합인재를 양성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핵심 연구분야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연구 사업이다. 올해 총 17개 과제 중, 경북대는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개 과제가 선정됐다. 연구비만 센터당 연간 14~19억 원씩 7년간 총 324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프트웨어(SW) 재난은 의도하지 않은 SW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인명, 재산 또는 사회적 피해를 의미한다. 최윤자 컴퓨터학부 교수가 이끄는 '소프트웨어재난 연구센터'는 SW 오작동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신속 탐지·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SW 재난 관리 원천기술과 통합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이 사업에는 경북대가 주관기관으로 고려대 등 7개 대학 소속 13명의 교수진과 70여 명의 연구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앙 가소성 연구센터'는 중앙 가소성에 기반한 암의 제어기전을 규명하고, 제어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총괄 책임자인 이병현 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2014년에도 선도연구센터 MRC에 선정되어 7년간 중앙 네트워크 제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노종욱 나노소재공학부 교수가 이끄는 '탄소중립 지능형 에너지시스템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는 나노기술-정보기술-에너지기술 간 다학제적 융복합 연구를 통해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운용할 스마트



ICT·자동차융합연구센터  
한동석 센터장  
KNU Center for ICT &  
Automotive Convergence  
Centre Director Dongseog Han



소프트웨어 재난 연구센터  
최윤자 센터장  
KNU Software Disaster  
Research Center  
Center Director Yunja Choi



중앙 가소성 연구센터  
이병현 센터장  
KNU Tumor Plasticity  
Research Center  
Center Director Byungheon Lee



탄소중립 지능형 에너지시스템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노종욱 센터장  
KNU 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 of Smart Energy System  
Central Director Jongwook Roh

### Bringing Back KNU Pride and Glo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knu.ac.kr](http://www.knu.ac.kr) SNS [www.facebook.com/knuofficial1946](https://www.facebook.com/knuofficial1946)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대구·경북 권역은 철강, 화학, 전기전자산업 등 국가기간산업단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탄소중립에 대한 수요가 많다. 경북대는 이번 사업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의 표본을 제시하고, 에너지 소재·부품·시스템 혁신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During the first half of this yea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KNU) was selected for nearly 1,700 projects for a total of KRW 214.5 billion in research funds,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This amount is more than 90% of the total research funds, KRW 235.7 billion, received from projects last year. The amount of funding received from national projects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as also surpassed the amount received last year, KRW 76.8 billion, with a funding of KRW 80.7 billion this year.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KNU had recently been selected for many large-scale government projects for cohort research.

Of these projects, 'University-Focused Research Institute in Science and Engineering'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s a meaningful academic support project that designates exemplary university-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of science and engineering to foster the production of research results and nurture accomplished researchers. This year, KNU Center for ICT & Automotive Convergence (Centre Director Dongseog Han) has been selected for the project and will receive a funding of KRW 7.7 billion for up to 9 years. With this selection, KNU now has a total of five major research institute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cluding the Research Institute for Ulleungdo and Dokdo, Autonomous Cluster Software Research Center,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Institute, and Center for High Energy Physics. Through this newly attained project, KNU Center for ICT & Automotive Convergence plans to develop human-intention-based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under the project name, 'Development of Multi-intelligence-based Human-centric Autonomous Driving Core Technology'. Major areas of research include ▲reflection of unexpected human behavior in autonomous mobility ▲atypical road environment ▲communication and precision positioning for large capacity sensor data transmission ▲human-intention-based driving control ▲commercializable AI architecture and embedded AI.

Following KNU's selection as the 'University-Focused Research Institute in Science and Engineering,' KNU was selected for three more 'Leading Research Center' projects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s a result, the total amount of research funding for the next 7 to 9 years is projected to reach KRW 40 billion.

The objective of the 'Leading Research Center' project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s to establish exemplary research groups and foster next-generation specialists to ultimately develop world-class competitiveness of core research fields. To list selected KNU centers in detail, KNU 'Software Disaster Research Center (Center Director Yunja Choi)' was selected as an Engineering Research Center (ERC); KNU 'Tumor Plasticity Research Center' (Center Director Byungheon Lee) was selected as a Medical Research Center (MRC); and KNU '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 of Smart Energy System (Central Director Jongwook Roh)' was selected as a 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 (RLRC). Among 17 projects offered by the ministry this year, KNU was selected for 3 projects, the second most af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ese projects, KNU is to receive a funding of KRW 1.4 to 1.9 billion per center in sole research expenses, or a total of KRW 32.4 billion in inclusion of all expenses.

To elaborate, the 'Software Disaster Research Center', led by Professor Yunja Choi of the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addresses the issue of software (SW) disaster, or extensive human, wealth or social damage caused by unintended software operation, by building an integrated framework and developing software disaster management technology to quickly detect and respond to disaster situations caused by software malfunctions and prevent recurrence. For this project, KNU is the lead institution with 13 professors and 70 researchers from 7 universities, including Korea University, to participate.

The objective of the 'Tumor Plasticity Research Center' led by Professor Byungheon Lee of the School of Medicine, is to establish a platform for identifying control mechanisms of cancer based on tumor plasticity and developing control materials. Professor Lee has conducted research related to tumor network control for 7 years, since the center was selected as a leading Medical Research Center (MRC) in 2014.

The '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 of Smart Energy System' led by Professor Jongwook Roh of the School of Nano &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seeks to develop a highly-efficient, eco-friendly energy platform through multi-disciplinary research between nan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and energy technology, as well as a smart-solution to operate this platform. As many key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re located within Daegu-Gyeongbuk area, such as steel, chemical, electrical and electronic industries, there exists a high demand for carbon neutrality. With this project, KNU, along with the Daegu-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GIST), plans to present a model of energy technology for carbon neutrality and secure foundational technology for innovating energy materials, components, and systems.





통합으로 혁신과 상생의 길을 열어갈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경상국립대학교**

**‘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출범  
학생들의 교육·취업 기회 대폭 확대**

“Ulsan-Gyeongnam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Project” to launch significant expansion of students’ educational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경상국립대학교가 총괄대학인 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이 출범했다. 출범식은 6월 8일 울산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역의 청년과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역침체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0년 경남지역 혁신플랫폼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1년에는 울산광역시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그만큼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산업적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큰 울산과 경남, 두 지자체가 손을 잡고 함께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데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사업 총괄대학인 경상국립대 권순기 총장은 “경상국립대는 플랫폼 구축, 핵심 분야 선정, 교육 체계 개편, 과제 수행 지원 등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끌고 뒷받침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경남과 울산 지역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혁신적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지역혁신의 리더로 활동하도록 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가진 혁신역량을 총결집한다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이다. 그 단초를 우리는 올해 경남형 공유대학인 USG의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ICT, 스마트공동체 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절실히 느꼈다.”라고 말했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launched the “Ulsan-Gyeongnam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in a ceremony held on June 8 at the Ulsan Metropolitan City Hall conference room. The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project is promoted to solve the vi-

cious cycle of regional stagnation, in which local young talented people flock to the metropolitan area for their careers.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Gyeongnam’s innovation platform project in 2020, the scope of the project broadened to Ulsan in 2021,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educational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students.

Yoo Eunhye,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ex officio Deputy Prime Minister, said, “I have high expectations for Ulsan and Gyeongnam, where the synergy effect of industrial cooperation is great, to join hands and foster outstanding young talents.”

Soon-Ki Kwon, the President of GNU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project, sai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ill make every effort to ensure that all processes, such as platform construction, the selection of a core field, education system reform, and the support of task performances, are carried out successfully.” He added, “Through this, we will innovate university education in Gyeongnam and Ulsan and inspire students who will receive innovative education to act as innovative leaders in this region.”

He also commented, “As long as we combine our innovative capabilities, a virtuous cycle will be created among nurturing regional talents, employment/startups, and regional settlement. We felt a greater motive this year as seen in our recruiting of new students for the departments of Smart Manufacturing Engineering, Smart Manufacturing ICT, and Smart Community at USG, a Gyeongnam-style shared university.”



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출범식이 6월 8일 울산광역시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The Launching Ceremony for the Ulsan-Gyeongnam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Project Held at the Ulsan Metropolitan City Conference Room on June 8

National Flagship University of Gyeongsangnam-do,  
opening the way to innovation and coexistence through integr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gnu.ac.kr](http://www.gnu.ac.kr) SNS • [www.facebook.com/smartGNU](http://www.facebook.com/smartGNU) • [blog.naver.com/gnujinju](http://blog.naver.com/gnujinju)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 선정  
“경남 바이오기업 가치 제고, 신규고용 창출”**

Selected as a 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 (RLRC)  
“Raising the value of bio companies in Gyeongnam and creating new jobs”

경상국립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사업(RLRC, 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에 최종 선정됐다. RLRC 사업은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혁신 분야에 특화된 선도연구센터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부산·울산 권역에서 각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혁신연구 분야에서 경쟁을 통해 1개 연구센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경남 지원 분야는 '항노화 바이오헬스'이다.

경상국립대는 2028년 2월까지 최대 7년간 정부출연금 101억 3,000만 원과 지자체, 경상국립대, 기업체의 대응자금을 포함하여 모두 144억 6,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경상국립대가 주관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아미코젠(주)이 참여한다.

경상국립대 ABC-RLRC는 항노화 바이오소재 발굴, 스마트 세포공장을 이용한 생산 플랫폼 구축, 항노화 바이오소재 실용화의 장애 요인 해결, 기업연계 산업화 기반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 특화 바이오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는 성장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원 센터장(생명과학부 교수)은 “항노화 바이오소재를 개발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권역 내 풍부한 바이오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노화 바이오소재 생산 세포공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was finally selected as the “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 (RLRC)” hos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The RLRC project builds and supports a leading research center specializing in regional innovation to drive sustainable, autonomous, and innovative growth in the region based on fundamental research. Moreover, the MSIT selects one research center for regional innovation designated by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competition in Gyeongnam, Busan, and Ulsan. This year, the ministry provides support for “anti-aging bio-health” in the Gyeongnam region.

Until February 2028, GNU will receive a total of KRW 14.46 billion, including KRW 10.13 billion in government contributions and response funds from local governments, GNU, and businesses for up to seven years. The project is hosted by GNU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and Amicogen.

GNU ABC-RLRC will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mall-sized regional bio companies and help increase the foundation for growth through the following: discovering antiaging biomaterials, building a production platform using smart cell factories, removing barriers to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antiaging biomaterials,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industrialization in connection with companies, and so on.

Kim Seon-won, head of the Center (Professor at Division of Life Science), said, “We will build and spread a cell factory platform that produces antiaging biomaterials. Through this, we want to develop antiaging biomaterials to preemptively respond to an aging society and boost the competitive edge of the regional biomaterials industry.”



경상국립대 ABC-RLRC 김선원 센터장  
GNU ABC-RLRC, Head of the Center, Kim Seon-won



##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 Leap forward, PNU 부산대학교

### 코로나19 돌기구조 밝힌 고가 첨단 연구장비 「초저온 투과전자현미경(Cryo TEM)」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구축

*Cryo TEM, High-end Advanced Research Equipment Revealing the Structure of COVID-19,  
Installed at PNU Yangsan Campus*

부산대학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기구조를 밝혀 이슈가 된 고가 첨단 연구장비인 「초저온 투과전자현미경(Cryo TEM, 크라이오템)」을 구축해 생체 및 합성 물질의 구조분석 등으로 국내 의과학 분야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IBS)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에 이어 부산대가 양산캠퍼스에 52억 8,400만 원을 투입해 연내 300kV(킬로볼트) Cryo TEM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Cryo TEM은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의 구조 연구, 세포 내 구조물의 고해상 구조분석 연구, 유무기 하이브리드(hybrid) 물질 및 나노 입자의 구조 분석 연구 등 생명과학, 의·약학, 생명공학, 환경공학, 농수산학, 재료공학 등의 다양한 첨단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암과 같은 난치병의 진단법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통해 구조생물학계 및 의학계의 최첨단 연구를 활성화하고,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농수산학 등 다양한 학제 간 최첨단 융합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ryo TEM 기술은 생체분자 구조 규명 연구뿐 아니라 구조생물학계 및 의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각종 감염병에 대한 진단기술, 신약 및 백신 개발 등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부산대는 지역 교육기관, 산업체, 연구소의 최신 원천기술, 신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거점대학 역할에 더욱 충실할 계획이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has acquired a *Cryo TEM*, an expensive high-tech research equipment that is capable of revealing the protein spike structure of the Corona 19 virus. PNU is expected to lead industrial-academic research in the domestic medical science field by using this equipment to undertake structural analyses of living organisms and synthetic materials, etc.

In Korea, following the Institute of Basic Science (IBS),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and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CH), PNU will invest 5.284 billion won in Yangsan Campus to install a 300kV (kilovolt) *Cryo TEM* within this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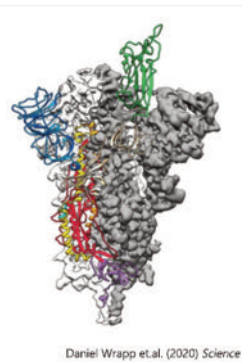
The *Cryo TEM* can be utilized for structural analysis of coronaviruses (SARS-CoV-2), high-resolution structural analysis of intracellular structures, structural analysis of organic-inorganic hybrid materials and nanoparticles, etc. It can be used for various types of cutting-edge research in life sciences, medicine and pharmacy,

biotechnology, environmental engineering, agricultural and fisheries science, and materials engineering.

In addition, it can encourage advanced research in structural biology and medical fields by enabling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methods and therapeutics for incurable diseases such as cancer. It will become a link that can promote cutting-edge convergence research among various disciplines such as life science, medicine and pharmacy, engineering, and agriculture and fisheries.

In particular, *Cryo TEM* technology is expected to create a new paradigm for structural biology and medicine as well as research that reveals the structure of biomolecules. This should lead to excellent research outcomes such as diagnostic technology for various infectious diseases and development of new drugs and vaccines.

Through this effort, PNU plans to faithfully fulfill its role as a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by supporting research on the latest source technologies and new technologies for the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s, industries, and research institutes.



Daniel Wrapp et al. (2020) Science

## Audacious Intellects Leap forward,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pusan.ac.kr](http://www.pusan.ac.kr) SNS <https://www.facebook.com/PusanNationalUniv>



### 「부산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 비대면 시대 최첨단 스튜디오 개소

*Establishment of Busan Regional Universities Remote Education Support Center  
State-of-the-art Studio Opened in the Remote Era*

부산대학교는 부산지역 대학들의 원격교육 질 개선을 위한 「부산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의 최첨단 스튜디오 구축을 완료하고, 6월 15일 교내 제11공학관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부산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부산지역 내 21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고품질 원격강의 콘텐츠 생산, 콘텐츠 생산을 위한 스튜디오 지원, 생산된 콘텐츠 활용을 위한 홈페이지 및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등 고품질의 원격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신 미디어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한 종합 스튜디오(2실) 및 셀프 스튜디오(3실)를 이번에 구축하게 된 것이다.

종합 스튜디오는 호리존·크로마카·스탠다드 등 다양한 컨셉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듈식 스튜디오'로, 최신 콘텐츠 트렌드를 반영해 전문설비를 실행하고 장기적 활용이 가능한 기초 인프라를 마련했다.

셀프 스튜디오는 실제 사용자(교수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장비 숙련도로도 활용 가능하게 했다. 실시간 화상수업, 녹화수업, 판서수업, 간단한 실험 등 대부분의 수업에 쓰일 수 있다.

부산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스튜디오는 부산권역 대학들이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고품질의 원격강의 콘텐츠를 생산·활용하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부산지역 대학의 원격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 교육체제 전환 대비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has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a state-of-the-art studio for the *Busan Regional Universities Remote Education Support Center* to improve the quality of distance edu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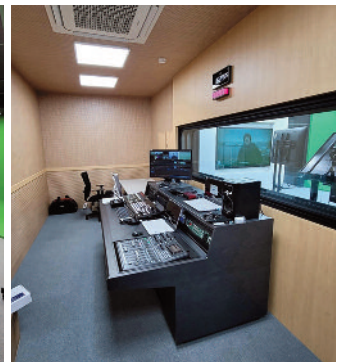
tion for universities in the Busan area. An opening ceremony was held at the 11th Engineering Building in the campus on June 15.

The *Busan Regional Universities Remote Education Support Center* is promoting various projects to provide high-quality remote education to 21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Busan, including high-quality remote lecture content production, studio support for content production, websites and an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for utilizing the produced contents. To this end, a comprehensive studio (2 rooms) and a self-studio (3 rooms) equipped with the latest media production technology have been built.

The comprehensive studio is a 'modular studio' that can be used for various remote learning approaches such as Horizon, Chromakey, and Standard. It has implemented specialized facilities by reflecting the latest content trends and provided basic infrastructure that will be used for a long time.

The self-studio has also made it possible for actual users(professors) with low equipment proficiency to use the facilities easily. It can be used in most classes such as real-time video classes, recording classes, board using classes, and simple experiments.

The *Busan Regional Universities Remote Education Support Center Studio* is expected to produce and utilize high-quality distance lecture contents by sharing the infrastructure among the universities in the Busan region. It will improve the satisfaction of professors and learners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distance education for the regional universities and provide preparation for future education systems.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서울대학교**

A Community of Knowledge, Leading the fu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snu.ac.kr](http://www.snu.ac.kr) SNS • [instagram.com/snu.official](https://www.instagram.com/snu.official) • [youtube.com/seoulnationaluniversity](https://www.youtube.com/seoulnationaluniversity)



**코로나19 신속검사 확대 등을 통한 2학기 수업 운영 안전 확보**

SNU Secures Class Operation Safety in the Second Semester by Increasing Rapid COVID-19 Testing

서울대학교는 학생과 직접 소통을 통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학내 의견 수렴을 거쳐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의 기본 방침을 '정부의 방역지침과 단과대학(원)별 가용자원 안의 범위에서 대면 수업 시행'으로 정하고, 신속 PCR 검사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 방역 조치를 통해 2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한 신속 PCR 검사는 외부 진단시설로 검체를 이동하지 않고 검체 채취부터 진단까지 현장에서 처리하여 2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온핵산 증폭법(LAMP)을 사용한다. 이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95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검사이다. 검사를 받은 학생들은 "기존의 선별검사가 8시간 걸렸던 것에 비해 빨라 편리하다", "최근 다른 연구실에서 확진자가 나온 일도 있으므로 검사를 함께 받으면 안심이다"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학기 수업 운영은 9월 전면 비대면 수업 진행 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강생 100명 미만 강좌 대면 수업(2단계 이하)부터 전 강좌 비대면 수업(4단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면 수업의 경우 좌석 간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강의실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체온측정,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주기적 강의실 환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된다. 또한, 확진자나 의사환자 등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대체 수업을 제공하며, 등교하는 학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수업일, 시간대, 강의실 등을 고르게 편성한다. 이와 더불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가이드를 마련하여, 강의실 소독, 비대면 수업 전환 등 안전한 대면 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교내 식당에서도 이용객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 운영 시간 연장과 포장 판매 도입 등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수리과학부 천정희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코로나 동선 안심' 앱을 통해 서울대 구성원은 확진자 동선과 본인의 동선 겹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4세대 동형암호 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의 확진자 동선과 본인의 동선을 비교 확인하며, 특히 '서울대 코로나 동선 안심' 메뉴를 통해 구성원들은 교내 확진자 동선 정보와 겹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SNU collected through direction communication with the students the opinions of the SNU members to enhance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determined the basic principle for the classes in the second semester of the year 2021 as "implementing face-to-face classes within the scope of the governmental disease-prevention guidelines and the available resources of individual colleges (graduate schools)," preparing the second semester with substantial disease-prevention measures including the increase of the rapid PCR test applications.

The rapid PCR testing, which was introduced in April by SNU firstly among the universities in Korea, allows for on-site sampling and diagnosis without the transportation of the samples to an external diagnostic facility, providing the test results within 2 hours based on the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LAMP) method. The testing method has a considerably high reliability, as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are both 95% or higher. The students who had undergone the testing generally gave positive comments, for example, 'The test is faster and convenient than the conventional screening test, which took 8 hours,' and 'I would feel comfortable if we can undergo the test all together, because a confirmed case was recently found in another laboratory.'

The classes in the second semester will be flexibly operated according to the social distancing level notified by the government from face-to-face classes with less than 100 attendants (Level 2 or lower) to full noncontact classes (Level 4). The face-to-face classes will be carried out by thoroughly complying with the governmental disease-prevention guidelines (temperature measurement, entry logging, mask wearing, periodic classroom ventilation, etc.) at the classrooms where distancing more than 2 m is possible between seats. In addition, alternative classes will be provided to the students who are unable to attend the classes physically, including the confirmed or suspected patients. Moreover, a response guideline in the occurrence of a confirmed case has been prepar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the sanitization of classrooms and the conversion into noncontact classes, to operate the face-to-face classes safely. In addition, the campus restaurants will prioritize disease prevention by extending the operation hours and introducing to-go services in order to decrease the user density.

Professor Jung Hee Cheon of the Department of Mathematical Sciences developed the 'COVID-19 patient re-tracking service' app that helps the SNU members to check the overlapping of

their movement lines with those of the confirmed patients. Based on the 4th generation homomorphic encryption technology, the app allows the users to compare their own movement lines with those of the confirmed patients in the Greater Seoul Area (Seoul, Incheon and Gyeonggi) without exposing the private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SNU members can check the overlapping of their movement lines with those of the confirmed patients in the SNU campus by using the 'SNU COVID-19 Re-tracking' menu.



서울대에서 운영 중인 신속 PCR 검사 전경  
Rapid PCR testing currently operated in SNU



'코로나 동선 안심' 앱 이미지  
A screenshot of the 'COVID-19 patient re-tracking service' app

# INTRODUCTION TO KOREA NU10

##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수갑** President Kim Suka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총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조화, 품격, 미래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그리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raws a Dynamic future bas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동원** President Kim Dongw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도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2, 2015, 2017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2012, 2015, 2017)

###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총장 송석언** President Seok-Eon Son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d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도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이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총장 오세정** President Oh Sejung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이진숙** President Jin-Sook Lee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一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착수,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Construction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rted.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정성택** President Jung Sungteak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Korea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국립대학교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4차 산업시대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Fostering creative convergence talents in the 4th industrial era

###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현영** President Kim Heonyoung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국립대 취업률 1위(2018년 1월 정보공시 기준)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notice in January 2018)

###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총장 홍원화** President Won-Hwa H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금지·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침성인' 양성
- 2021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54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54th in THE University Impact Rankings 2021

### 경상국립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총장 권순기** President Soon Ki Kwon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33, Dongjin-ro, Jinju, Gyeongsangnam-do, 52828 Korea

- 2021년 3월 1일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 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화학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대학

- On March 1, 2021, form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erged int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Korea's best competitive potential in the fields of life sciences, aerospace & mechanical engineering, nano &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and chemistry
- The leading university for Ulsan-Gyeongman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a regional innovation project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ies

###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총장 차정인** President Cha, Jeong I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